

# 큰 슬픔 속 “시민종교(civil religion)”의 징후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엄청난 슬픔에 빠졌다. 우리 개인과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물질주의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지분한 대가가 너무도 컸다. 특히 인간에게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자식을 먼저 보내는 상처를 집단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더 힘들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를 비롯한 관료, 정치권, 기업, 언론 등 모든 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시대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깊이 각인된 낙망과 불신이 가장 아프다. 사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벗어나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 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죄의 결과이다. 사랑보다는 가진 것이, 생명보다는 책임 회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이번 참사로 인한 비판과 회개의 대상에 교회와 우리 자신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이이다. 너무 아파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선 안 될 이 사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 가운데 이번 참사를 겪는 과정에서 미디어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언론인 “손석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성 언론에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손석희는 거의 유일한 호응의 대상이었다. 사고 후 수차례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으며, 그의 말과 행동, 심지어 방송에서 입은 옷차림까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그가 이번 과정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사고 당일 JTBC 기자가 생존 학생과 인터뷰 도중 저지른 치명적 실수를 사과하는 과정에서였다. 자칫 JTBC 보도부문 전체의 심각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상황이었지만 그의 사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이끄는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JTBC에만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문자와 동영상 등을 독점으로 제보하기도 하였다. “손석희 현상”이라 부를만하다. 그런데 이 손석희 현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속보성, 정확한 정보 전달, 비판기능 등에 대한 환호만은 아니었

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손석희에 반응했던 순간들은 형식적이거나 말뿐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사과멘트, 인터뷰 중 구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의 말에 얼마간 말을 잊지 못하던 장면, 학부모와 인터뷰 중 추가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자막이 나오자 “자막은 올리지 마시구요.”라던 즉흥적 주문, 매 시간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오프닝과 클로징 등이었다. 모두 저널리즘의 교과서적 가치와는 다른 측면들이었다. 사실 JTBC가 정보의 정확성에서 여러 오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석희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학자들은 위기나 재난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대중이 언론 혹은 언론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사제(priest)”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즉, 사람들은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이를 함께 헤쳐나가는 일종의 집단적 의례(ritual)를 집전할 뿐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생채기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이런 상황의 철학적, 나아가 종교적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에게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 이후 온 사회가 큰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리는 크지 않았다. 어느 종교지도자나 종교단체도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지 못했고 사실 대중의 정서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죄와 벌”이라는 단순논리로 비극과 희생을 재단하곤 했던 예전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에 안도할 따름이었다. 이렇게 볼 때 손석희 현상은 재난상황에서 사제로서의 언론을 향한 대중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집단적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존재를 손석희에게서 찾은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른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은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도 지나도록 생존자 구조소식이 들리지 않자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노란색 리본을 옷에 달거나 SNS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노란리본 모양으로 바꾸자

는 운동이었다. 처음엔 한 대학생 동아리가 만든 리본 샘플이 빠른 속도로 퍼지더니 곧 다양한 모양과 문구를 담은 리본들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오프라인 곳곳에서도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기원을 상징하며 나부끼게 되었다.

사실 이 노란리본 캠페인은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특히 너무나 어린 생명들이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집단적 기원에서는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기도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특정 종교의 형식과 내용을 정교하게 따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한 종교의 방식을 채용한다는 건 모두의 마음을 모으려는 취지를 거스르기 쉽다. 가급적이면 어느 종교와의 직, 간접적 관련성은 제거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초기에 일부 기독교인이 '종교 혼합주의'와 '주술행위'를 앞세워 신앙인의 동참을 반대한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공동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의를 세우기 위해 선 타인의 엄청난 고통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적 집단이라는 기존의 낙인을 재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캠페인의 유래를 밝히고 설부른 영적 해석을 경계한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해프닝에 그치기는 했지만,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정서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으면서 나타난 손석희 현상과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은 한국 사회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종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더 이상 제도종교가 전면에서 사회를 통제할 수 없는 정교분리가 규범화된 현대 세속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종교현상을 "시민종교(civil religion)"라 부른다. 시민종교는 세속사

회가 종교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제도종교와는 의도적인 거리를 두며 실천하는 종교적 의미의 행위나 의례를 말한다. 제도종교의 힘이 날로 약화되는 시점에, 특히 우리처럼 다종교와 세속주의가 매우 분명한 상황에서 시민종교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읽어내는 것이 왜 필요할까? 첫째, 세속적 가치와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종교적, 영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날로 위험은 더해져만 가고,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와 세계관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삶과 죽음, 고통과 희망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예언을 필요로 한다. 비록 대중은 미디어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필요를 확인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크다.

둘째, 이러한 영적 필요와 욕구를 드러내는 이 세상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러셨듯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소통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에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지했다. 단지 우리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고 정죄할 뿐이었다. 시민종교는 영적 필요와 욕구를 말하는 세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과 표현방식,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크게 아파하고 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기독교영화의 르네상스는 오는가?

◎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 리얼리즘에서 판타지까지

2014년 부활절은 기독교영화로 둘러싸여 있었다. 북한지하교회교인들의 신앙과 고난의 현장을 담은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기독교영화계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지난 2월 13일 개봉하여 8주간 전국누적관객수 42만 명을 기록하며 기독교 영화가 그동안의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손익분기점을 30만 명으로 본다는 제작사측의 말을 고려한다면 40만 명을 훌쩍 넘긴 관객 수는 다음 영화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저예산영화인데다 기독교의 색채가 강한테에도 불구하고 40만 명을 넘긴 일은 한국기독교영화의 지속적인 제작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이 보낸 사람>은 영화관을 떠난 뒤에도 미처 영화를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